

## [보도자료]

# "다민족·다문화 시대,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다문화 수용성 증진 교육이 필요"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포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김 인 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haza4122@kwdimail.re.kr)

보고서 관련 문의 : 양 애 경 연구위원,

(연락처: 02-3156-7152, 이메일: agyang@kwdi.re.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를 연구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7년 8월말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00만 명에 이르며, 그 중 결혼이민자는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가시화되어 가는 결혼이민자들과 그들에 의한 새로운 정책수요에 주목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 여성정책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에 정책 방향 재검토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에서 가족중심의 여성결혼이민자 정책을 탈피하여 다문화 사회의 견인차로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 보고서는 최근 천편일률적 문화적응 위주의 여성결혼이민자대책으로부터 벗어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닌 능력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역사회의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 ◇ **친다문화적 지역환경 조성이 필요**

이 보고서는 다문화·다민족 시대를 열어 가는 현 시점에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차이 인식과 존중에 기반한 쌍방향 문화소통을 위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 교육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하였다.

쌍방향 다문화소통을 위해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도 함께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수용성 증진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정책에 대하여 국민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 **여성결혼이민자와의 접촉 증진의 기회를 마련**

이 보고서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간의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다민족·다문화 사회를 여는 중요한 걸음을 지적하였다. 그 예로 주민참여형 언어교육활동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교육활동이 실제 생활 속 언어소통의 경험으로 체화될 수 있게 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보다 밀착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1983년 개원 이래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을 담당해왔다.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

개발, 여성연구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여성과 가족 그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